

자자석 박사의 불교공부기도



삼보(三寶)의 출현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결심하고 나자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를 찾아가 교화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있는 바라나시로 향했다. 다락 걸어서 18일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다. 바라나시는 예부터 카시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 부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는 코살라와 마가다라는 두 강대국이 이곳을 쟁취하기 위해 다투는 바람에 매우 피폐한 도시로 전락해 있었지만 많은 사상가와 수행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불전에는 단지 다섯 비구를 교화하기 위해 이곳으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곳에 집결해 있는 수많은 수행자와 사상이 내지 문호들이 부처님의 관심을 이끌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그들을 설득하여 설법하게 된다. <전법륜경>에서는 이때의 설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출가한 수행자는 두 가지 극단에 처우해서는 안 된다. 애욕에 탐닉하는 것은 범부가 하는 짓이다. 고행을 일삼는 것도 다만 괴로움 뿐이며 성스러운 일이 아니다"라 설파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표현

부처님께서 사승동산에서 다섯 비구를 교화하는 데는 중도법, 8정도, 보시, 지계, 생전론이 설파되었다. 중도법이란 인생에는 절도와 절제를 필요로 한다는 가르침이다. 보시는 사회적 덕목으로서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점을 자각케 하는 가르침이다. 지계는 개인의 생활을 규율해 주는 덕목이며, 인도 전래의 수행자들이 공통의 규범으로 삼고 있었던 살생, 간음, 거짓말, 도둑질, 소유 등에 대한 금지였다. 생전사상은 사회윤리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선의 양양과 악의 방지이다. 이것은 종교적 규범이나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을 실천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제는 하늘 [天]의 정확한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범어 deva(데와)를 번역한 용어이며, 중생들이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6도 중에서도 착한 공덕을 가장 많이 쌓은 중생들이 간다고 하는 삶의 범주이다.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늘 [heaven]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인도인들은 깨닫지 않는 한 영界的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점에서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세계가 바로 데와 [天]의 세계였던 것이다.

초천법륜이 불교역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초전법륜 불제자 교화' 동시 탄생 장구한 인류종교사에 '장엄한 빛'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인 도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중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덟 가지의 올바른 길을 걸어라 한다고 역설한다. 여덟 가지의 길이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알아차리고, 바르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설법을 들은 다섯 비구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깨달음을 얻어 구족계를 받고 최초의 제자가 되었으니 바로 문단나이다. 한역 불경에서는 아약교인어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처님은 나머지 네 명의 수행자를 위해 다시 중도법 이외에 보시, 지계, 생전(生天)법을 설했다고 한다. 아약교인어 이외의 수행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데는 며칠에 걸친 시간이 필요했으며, 일찍 깨달은 수행자들은 설법하는 부처님과 아직 깨닫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탄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행까지 병행하여 당신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이전의 수행 동료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했으며, 그들은 가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존경과 사랑으로 따르게 되었다.

처음으로 설법을 시작했다는 점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불교도들이 귀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삼보가 비로소 갖추어졌다는 점이다. 삼보 중에서 부처님과 법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시에 등장하지만 삼보는 초전법륜을 통해 다섯 비구를 교화하고, 그들이 부처님의 성실한 제자로 거듭 태어남과 동시에 탄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승가는 완전한 승가는 아니었다. 이들을 교화한 이후 부처님께서도 방랑하는 젊은이 아사를 교화한다. 또한 부처님을 찾아와 아들을 돌려달라는 아사의 부모님까지 교화하게 된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감격한 아사의 부모님은 최초의 재가신도가 되는 것이다. 아사의 부모가 최초의 재가신도가 되자 3부중의 승가가 되며, 부처님의 양어머니인 마하파제파트가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자 4부중의 완전한 삼가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4부중의 출현은 시간이 흐른 다음의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다섯 비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동시에 삼보가 인류의 장구한 종교사에 그 빛을 뿌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문지 삼십년설원전 · 불교학 박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약사원(藥師院은 화주산(華周山) 계곡 사이에 살포 안겨있는 아담한 절이다. 대웅전의 오른쪽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큰 바위산이 눈길을 끈다. 그 바위 면에 마애부처님을 한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남천(南天)스님은 자주 산으로 포행을 가신다고 한다. 10월 22일 약사원을 방문한 남 천스님이 포행갔다 주위으셨다는 도로 리로 만든 고소하고 씩씩한 목을 맛있게 먹었다.

남천스님은 절이란 어떤 것인가 정의를 하시는 것으로 말머리를 꺼내셨다. "절이란 대중이 공동으로 마음에 묶은 업장을 세척할 수 있는 성지(聖地)이고 번뇌에 찌든 마음을 정화하면서 인격을 완성시키는 곳입니다. 생사윤회와 육도사생의 업고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인데 요즘 불자들은 '복을 받는 곳'이란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보시기에, 절에오는 신도들 중 부처님이 신봉력이 있어서 아들 낳게 해 주고, 남편 승진시켜 주고, 아들 합격시켜 주는 곳으로 여기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복을 주었다. 어느 절에 갔더니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부처님처럼 노력하고 정진해야겠다. 부처같은 마음으로 일했다. 다로 마음을 고쳐먹어야 해요." 스님은 출가수행자조차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스님들을 보면 듣기 싫다 해서 물리친다고 하신다.

"요즘은 공부도 많이 하고, 습득하는 정보도 엄청나. 이것 저것 아는 것도 많은데 현대인들은 지혜하고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을 수록 마음 비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 청정한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경전에서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다 청정해 진다고 했잖아요. 밖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과화문명이 발달하고 습가쁘게 격변하는 사회에 살수록 자기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아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부처님 명과 상을 떠났으니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없고, 시방과 삼세를 초월하였으니 그 광명이 법계에 창입하여 단 일초라도 그 은혜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삼라만상 처처에 법신이 상주하지만 법이 이 두터운 중생들은 동정(動靜)을 같이 하는 부처를 부처로 볼 줄 모르지요."

청정법신 속에서 호흡을 같이하고 살면서도 청정법신의 전체를 보기는 커녕 인간세계에 살아도 지옥에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만 알고 이기심이 충만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 고통속에 사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지옥에 사는 것"이라고 일갈하신다.

그렇다면 불자의 삶은 일반인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항상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잘 살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쳐서 고치려는 마음이 '참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별로 참회할 것이 없다고, 법이라도 잘 사람이라고.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악업을 지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매일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탐진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요. 고요하지 않고 풍랑만 내 배처럼 흔들리지요. 사람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한없이 후하고 너그럽기 쉽지만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오계(五戒)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남천 스님 (포항 약사원 조실)

매일 참회하면 날마다



◇나의 마음이 청정하면 이세상이 청정해지니 늘 마음 닦기를 게을리 말고 강조하는 남천스님.



◇남천스님(가운데)이 신좌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신의 부족된 점을 살피고 꾸준히 보완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천스님은 불보종찰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을 은사로 모셨다. 남천스님은 호(號)상좌로 소문이 나 있다. 오랜시간 시봉했으며, 수시로 은사 스님을 찾아 법교 스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신다. 월하스님이 조계종 중정으로 계실 때도 약사원에 한동안 주석하신 정도로 스님을 가깝게 생각하신다고 한다. 상좌인 대광스님(약사원 주지)은 "우리 스님을 보면 '천진불'이란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가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한다. 제자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질문이나 인생 상담도 잘 받아주신다. 스님은 예전에 고아원에 가서 부모없는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원하는 이는 출가도 시켰다. 나이 어린 꼬마를 무릎에 앉히고 자상하게 공부를 가르쳐주었다고 상좌 스님들이 예전 일을 회상했다. "내가 출가할 때만 해도 사람이 무척 어려웠어요. 또 비구 대처 싸움이 심할 때라 경황도 없었고, 공부하고 싶어도 강원을 개설한 곳이나 책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너무 풍족하다 보니 예전보다 처열함이나 정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천스님이 젊은 시절을 회고하셨다. 월하스님의 가르침 '不經一事 不長一智 知足可樂'

간(肝)

간 지방간 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당과 비단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심대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인 것과 번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도 단위로 포장한다.

다슬기 기를 다슬기 15kg을 할이리에 넣고 원기 97마니를 넣은 뒤 원기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명숙에 묻어온 빈 할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한다. 다슬기 기를 만드는 데 원기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린다. 한달 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를 토종 (민속농원)

성리실버타운

유료양로원

▶ 시설안내 ◀

- 숙실수: 96실(2인 기준) • 동층수: A동, B동 - 지하2층, 지상4층
- 숙실평형: 9.5평
- 부대시설: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 (사공중) 등.

입주비용	구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임주금 현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이사장 석정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리원 · 성리실버타운 · 기행사무소: 경기도 가평군 성면 본부사무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85번지 · 분수리 49-4번지
☎02)743-0294 / 743-4026 ☎031)585-3323~5

원리를 아는 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들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움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업 프랜차이즈명 영평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업 프랜차이즈 종류 ◆

수업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업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업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업 판관 갤러리 - 외화학특

수업 선생의 오감민족 기열순환 마사지 '열기영양'

케이블 북아 TV, 10/7 -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범패의식 비디오

"범패를 배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까요?" 한 번이라도 공부를 하신분은 아실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엔 출시되는 범패의식 비디오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남, 호남, 수도권에서 의식되어지고 있는 모든 유형의 범패가 이번 비디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존 계통가 달리 방송용 카메라(ENG) 조명장치, 크레인, 생우더빙 등을 사용하여 화면이 생동감이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각국의 유명명승지를 화면에 이중영상처리하여 범패의식의 지루함을 보완하였습니다.

1. 안정사 전통범패의식(경남 통영)
 - 해강 큰스님(무형문화재 제9호 보유자)
 - 진하스님(준보유자 / 서울 금강선원 교수)
 - (1) 대령 / 관육 (2) 지장청
 - (3) 전신시 (4) 삼신이운 / 삼보통청
 - (5) 범패작법부 따라하기(실습용)
2. 태고종 전통범패의식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자/ 호남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
 - (1) 대령 / 관육 (2) 상주전공 지장불공의식
 - (3) 상용영반 / 산중작법 의식(4) 교계
3. 청화 대선사 비디오
 - (1) 순선법문 1, 2 (2) 서울길상사 천도재
 - (3) 철원실현사 보살계 (4) 변산실상사 천도재

구입처: 다원미디어
[02]957-4886 / 016-240-3468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2-606
계좌번호: 외환은행 284-18-00208-7
* 초파일, 사찰행사 등에 이미 녹음된 TAPE를 촬영된 비디오를 선정하고 소음을 제거하여 재편집하여 비디오, TAPE, CD, DVD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범패영상